

10월 취업자 68만명 늘었지만 5개월째 둔화...금리·물가 변수

통계청 '2022년 10월 고용동향' 발표
같은달 기준 23년 만에 최대 폭 증가
60세 이상 46만명 증가...67.9% 차지

지난달 취업자 수가 68만명 가까이 늘었지만 5개월 연속 증가 폭이 둔화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취업자가 가장 적게 증가하는 등 올해 하반기 들어 고용시장이 위축된 모습이 드러났다.

특히 증가한 일자리 3명 중 2명은 60세 이상 고령층인 반면 경제 허리층인 40대는 감소세가 지속됐다. 여기에 고물가·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면서 향후 고용동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2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67만7000명(2.4%)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1999년(96만 6000명) 이후 2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저 효과로 올해 1월(113만5000명), 2월(103만 7000명) 100만명 이상 증가 폭을 기록했다.

3월(83만1000명)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했다가 4월(86만5000명), 5월(93만5000명) 확대됐다. 6월(84만1000명)부터는 증가

폭이 줄기 시작해 7월(82만6000명), 8월(80만7000명), 9월(70만7000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20만1000명(4.7%) 늘어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숙박 및 음식점업도 15만3000명(7.3%)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증가 폭도 같은 달 기준 2014년(15만4000명) 이후 8년 만에 최대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제조업 고용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풀리면서 외부 활동이 증가하며 취업자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1000명·4.5%) 등에서도 늘었으나 도매 및 소매업(-6만명·-1.8%), 금융 및 보험업(-1만5000명·-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7000명·-0.6%) 등에서 쪼그라들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6만명 늘

었다. 증가한 일자리 67만7000명 중 67.9%가 고령층 일자리라는 이야기다. 50대 14만 7000명, 30대 6만1000명, 20대 2만8000명 증가했으나 40대만 1만1000명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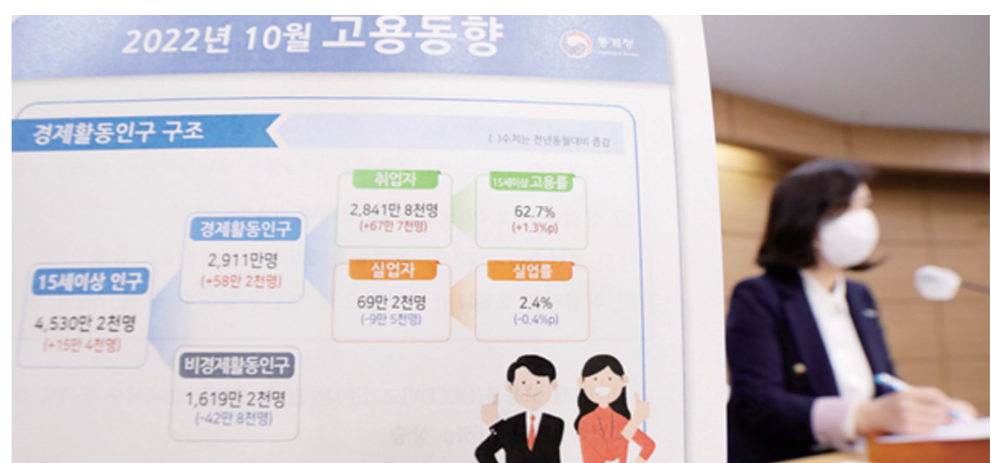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46.4%로 1.3%포인트(p) 올랐다.

종사자별 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73만8000명(4.9%)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8만5000명(-1.8%), 8만명(-6.6%) 감소했다. 특히 일용근로자는 지난해 5월부터 18개월 연속 내림세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9000명(2.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6만7000명(5.1%) 증가했지만,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1000명(-5.8%)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를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373만2000명으로 279만4000명(-16.9%) 감소했으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429만9000명으로 345만9000명(31.9%) 증가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같은 달 기준으로 1987년 7월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고용동향 조사 기간(10월9~15일)에 한글날 대체공휴일이 끼면서 36시간 이상 근무한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8.9%로 1년 전보다



16%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3%p 오른 62.7%로 집계됐다. 이 또한 통계가 작성된 1989년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달 실업자는 69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5000명(-12.1%)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4%로 1년 전보다 0.4%p 하락했다. 실업률은 1999년 6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동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19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만 8000명(-2.6%) 감소하며 20개월 연속 내림

세를 보였다. 공 국장은 "지난해 기저 영향 등으로 증가 폭이 둔화했다"면서 "올해 취업자 수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리, 물가, 환율 등 외부요인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고물가, 금리인상, 수출위축 등 하방요인이 상존하고 내년에는 경기 불확실성 확대, 기저 효과 등으로 증가 폭 둔화가 확대될 전망이다"이라며 "경기 둔화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구인·구직 미스매치 완화 등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이슬 기자

CP 금리 5% 찍었다...한 달 넘게 고공행진

올해 초 1% 중반대에서 가파른 상승세

단기이자시장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 5.0%를 기록했다. 최근 기업들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CP 시장에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등급 A1 기준 CP 91일물 금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0.02%포인트 오른 연 5.0%로 집계됐다. 지난 9월21일(3.13%) 이후 거래일 기준 3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CP 금리가 연 5.0%가 된 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1월15일(5.0%) 이후 13년10개월 만이다. 지난 1월3일 1.55%에 불과했던 걸 감안하면 눈에 띄게 치솟았다.

긴축 기조 지속에 금리가 상승세였는데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속출한 영향이다. 담보 없이 신용으로 발행되는 CP는 발행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금리와 만기를 쉽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상위 신용등급인 기업도 연 5~6%대 CP 금리를 제시해야 투자자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례로 SK그룹은 오는 10월 3년물과 5년물 CP를 각 1000억원씩 발행하기로 했다. SK가 만기 1년 이상 장기 CP를 발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년물과 5년물 CP 금리는 각 연 5.629%, 5.745%로 책정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23일 50조원 이상 유동성 지원조치를 발표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가동에 나섰다. 또 지난주부터 CP를 중심으로 매입에 나섰다. CP금리는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약세가 계속되는 분위기다.

이호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업의 차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CP 발행이 어려워지면 레포(Repo) 시장의 결제불이행 위험이 증가하고, 머니마켓펀드(MMF)에서 자산급매 현상이 관찰돼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전반으로 위험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회사들도 자금 운용과 조달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재환 기자

일본 다음은 어디?...태국·베트남·싱가포르 등 인기

트립비토즈 최근 한 달간 동남아 숙소 예약 데이터 비교



일본 다음으로 가장 인기 있는 동남아 여행지는 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예약 플랫폼 트립비토즈는 10월 한달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태국 숙소 예약

은 거리두기 해제 전인 지난 3월과 비교해 약 1034%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인기 도시는 ▲방콕 ▲파타야 ▲코사무이 순이었다. 방콕은 태국 역사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태국의 수도로, 전 세계 여행자들이 모이는 인기 여행지다.

특이한 점은 3월의 태국 인기 도시가 ▲방콕 ▲파타야 ▲크라비 순이었던 데 반해 10월에는 코사무이의 인기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최근 방영된 인기 예능 프로그램 '뽕방 지구오락실'에서 멤버들이 방문한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태국 다음으로 인기 있는 여행지는 베트남이었다. 베트남은 3월 대비 1760%의 숙소 예약 상승률을 보였다. 인기 도시는 ▲다낭 ▲하노이 ▲나트랑 순이었다. 싱가포르 역시 3월 대비 389%의 예약 상승률을 보이며 꾸준히 인기 있는 여행지임을 입증했다.

태국과 싱가포르는 입국자에 대한 격리와 모니터링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베트남은 현재 기준 15일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불필요하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가 면제되며 입국 후 열혈감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트립비토즈 박성윤 COO는 "최근 엔데믹으로 인해 각국의 출입국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 여행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추운 날씨를 피해 따뜻한 동남아 국가로 여행을 가려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유니 기자



블루스트리트, 스페셜티원두 등 판매

온라인 스토어 오픈

전국의 지역 맛집들을 소개하고 가정간편식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블루스트리트가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기간제(계절에 따라 발행하는) 푸드 매거진과 로스터리 카페들의 스페셜티급 원두들을 구매할 수 있다. 블루스트리트 가정간편식 상품들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블루스트리트는 온라인 스토어 오픈 이후 우선 스페셜티급 원두와 커피 상품 판매에 주

력할 예정이다. 품질 좋은 원두만을 활용해 블렌딩 한 원두들과 드립백, 티백, 상공기획(MD) 굿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상품 라인업은 원두 외에도 점차 확대한다.

블루스트리트는 일반 소매판매 이외에도 홈오피스와 카페매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량·정기 납품도 진행 중이다.

블루스트리트는 온라인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스페셜티급 원두들을 '1000원'이라는 파격 할인가에 한정수량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추후 다양한 이벤트와 자체 패키지 상품들도 기획하고 있다.

뉴스

완도다시마과자·안동조청캐러멜...관광공사가 만든 관광기념품

롯데백 시시호시와 협업해 8종 발굴·육성...11일부터 판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롯데백화점 자체 브랜드 '시시호시'와 협업해 8종의 음식관광 기념품을 선보인다.

관광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1년에 걸쳐 상품화 작업을 마친 8종의 기념품들을 오는 11일부터 선보인다. 대표 음식관광 기념품으로 선발된 상품은 ▲문경 약돌돼지 육포 ▲완도 다시마 두부과자 ▲안동 조청 캐러멜 세트 ▲고흥 석류·유자 샌드위치 ▲보성 유자 박하 발효차 ▲서천 바삭바삭 김스낵 ▲청도 영양 산채·버섯밥 ▲영덕 대게 계떡지이다.

공사는 지난 2년간 음식관광 기념품을 롯데시시호시 편집샵에 입점시켜 판매하며 협업을 진행해왔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시시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시시호시의 가공식품·유통 분야 10년차 이상의 MD들과 함께 상품 발굴을 진행했다. 전국 134곳의 시장조사사를 통해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구력 있는 품목 100여개를 선정하고, 개별미팅·품평회 등을 통해 후보를 선정했다. 이후 지역적 특성, 제조업체의 참여 의지, 관광기념품으로써의 역할 등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해 8개의 음식관광 기념품을 최종 선발했다.

상품들은 오는 11~17일까지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 지하 1층 '82 터미널·K-로컬 기념품숍' 팝업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17~24일에는 김포공항점·동탄점·평촌점·부산점·인천점 등 롯데백화점 5개 매장에서, 21~27일에는 서울 성수동 프로젝트센터 5호점 팝업스토어에서, 다음달 2~3일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관광기념품박람회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14~20일에는 '롯데온'을 통해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정창욱 공사 관광산업실장은 "상품 경쟁력



강화와 판로 개척을 위해 민간업체와 협업해 기념품 발굴부터 팝업스토어 운영까지 전 프로세스를 함께했다"며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도=기동취재본부